

몸소 정해주신 연석높이

언제인가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완공단계에 있는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찾으시었을 때의 일이다.

이날 조국해방전쟁참전렬사묘를 더 훌륭히 완공하는데서 나서는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던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려사묘구역안의 도로들에 대한 포장을 언제부터 하는가에 대하여 료해하시였다.

그러시고는 일군들에게 도로웃면이 어디까지 놓이게 되는가고 물으시였다.

한 일군의 보고를 받으신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는 려사묘구역의 도로포장을 할 때 포장면이 연석웃면에서 20cm정도 아래에 놓이게 하여야 한다고 세심히 가르쳐주시였다.

흔히 도로건설에서 많이 쓰이는 연석은 차길과 걸음길을 구분하기 위하여 깔아놓은 돌이나 블록로서 차길포장면보다 일정한 정도 높게 설치하는것이 공식화되어있었다.

그러하지만 경애하는 총비서동지께서 도로포장면에서 연석웃면까지의 높이를 놓고 치수를 꼭 짚어 밝혀주시는데는 깊은 뜻이 있었다.

그것은 도로포장면에서 연석웃면까지의 높이를 바로 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이곳을 찾는 전쟁로병들과 전시공로자들을 비롯하여 나이가 많은 로인들이 불편해할수 있다는것을 헤아려보신 사려깊고 다심한 정의 발현이였다.

그 어떤 경우에도 인민의 편의를 제일로 중시하시는 경애하는 그이께서는 이렇듯 눈에 잘 띄우지 않는 도로포장면과 연석웃면까지의 높이에도 깊은 관심을 돌리시는것이였다.

우리의 총비서동지께서 몸소 정해주신 연석높이,

여기에는 전쟁로병들을 비롯한 우리 인민들을 귀중히 여기고 따뜻이 보살펴주시는 경애하는 총비서동지의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자애로운 어버이사랑의 세계가 뜨겁게 응축되어있다.